

# 다니엘서 - 제151호

성전의 상징성: 신과 인간의 관계에 감춰진 신비를 드러내기

Jeff Pippenger

2024-03-22

두 막대기가 서로 이어져 하나의 성전이 된다. 46은 성전을 상징하는 수이며, 북왕국의 포로기와 남왕국의 포로기를 가르는 간격도 46년이다. 1798년 끝의 때에 성소와 군대가 짓밟히는 일이 마쳐질 때, 두 막대기를 하나의 성전으로 잇는 기간도 46년이다. 기원전 723년부터 기원전 677년까지 성전은 허물어지고 짓밟혔다. 1798년에 그 짓밟힘이 끝났고, 1844년에는 성전이 세워졌다. 거기서 그들은 한 왕 아래 한 민족이 되고, 영원토록 죄를 그치게 되어 있었다. 그것이 계획이었으나, 1863년의 반역으로 그 계획은 2001년으로 미뤄졌다.

바울은 교회를 몸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규정하며, 몸을 육체의 상징으로 사용한다. 바울에게서 육체와 몸은 상호 교환 가능한 용어이다.

이는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요, 그러나 너희가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13.

인간의 성전의 설계는 하나님의 성전의 설계를 바탕으로 한다. 몸, 즉 교회는 개인의 성전에서 육체에 해당한다. 개인의 성전에서는 정신이 머리이고, 몸은 육체이다.

우리는 그의 몸, 곧 그의 살과 그의 뼈에 속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리므로 사람이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큼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30-32.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 하나님의 비밀을 마무리하는 사역의 시작을 알렸을 때, 요한이 측량하라고 명령받은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였다. 그러나 인간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이 둘은 서로 대체 가능한 상징들이다. 모세는 산에서 사십육 일 동안 머무르며, 지상 성막을 세울 때 사용할 식양을 보이심을 받았다. 그 식양은 하늘 성전에서 취해진 것이였다.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늘의 성전이셨으며, 사람들은 그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그분은 인간 성전의 원형을 나타내십니다. 이런 이유로 인간 성전의 원형은 46개의 염색체로 표현됩니다.

성전들은 예언적으로 서로 대체될 수 있다. 따라서 요한에게 측량하라고 명령된 성전은 틀 없이 오직 두 구역으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첫째 구역은 인간 성전, 곧 교회(신부), 나라, 몸, 즉 육체를 의미한다. 둘째 구역은 신적 성전, 곧 신랑, 왕, 머리, 즉 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 날들에 십사만 사천을 위해 성취되는 영원한 언약의 약속은 에스겔 37장의 두 막대기로 상징되어 왔다. 두 구역으로 이루어진 요한의 성전으로도 그것이 설명되었다. 믿는 자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 곧 영광의 소망에 관한 바울의 구체적 정의들로도 그것이 설명되었다.

십사만 사천인을 인치는 사역은 신성과 인성을 영구적으로 결합하는 사역이다. 그 사역은 일곱째 나팔이 울리는 동안에 이루어진다. 그 결합은 성경에서 여러 방식으로, 한 줄 위에 한 줄을 더하듯 제시된다. 칭의와 성화의 사역은 그 사역을 가리키는 신학적 용어들이다. 칭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리자로서 행하신 사역이며, 성화의 사역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범으로서 행하신 사역이다. 칭의는 하늘에 대한 우리의 법적 권리를, 성화는 하늘에 대한 우리의 적합성을 나타낸다. 이 두 사역은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신자에게 이루어진다. 그 사역은 영원한 언약 안으로 받아들여진 자들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는 것으로 표상된다.

'마음'은 머리가 거하는 성전의 방을 가리킨다. 마음은 '상위 본성'이라 불리며, '하위 본성'인 육신과 대비된다. 마음은 우리의 생각으로 나타나고, 육신은 우리의 감정으로 나타난다.

많은 이들이 불필요한 불행을 경험한다. 그들은 예수께로부터 마음을 돌려 지나치게 자신에게 집중한다. 사소한 어려움을 과장하고 낙심스러운 말만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쓸데없이 불평하는 큰 죄를 범하고 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과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는 모두 하나님께 빚지고 있다. 그분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는 그분 자신이 지니신 것과 유사한 능력을 주셨고, 우리는 이 능력들을 발전시키기 위해 성실히 힘써야 한다. 이는 자기를 기쁘게 하고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에서 흔들리거나 벗어나게 해서 안 된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마땅히 행복해야 하며, 자제의 습관을 길러야 한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도록 해야 하고, 감정은 이성과 신앙의 통제 아래 두어야 한다. 우리의 상상력은 절제와 훈련의 노력 없이 제멋대로 날뛰고 자기 뜻대로 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다. 생각이 그릇되면 감정도 그릇될 것이며, 생각과 감정이 합하여 도덕적 품성을 이룬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절제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할 때, 우리는 악한 천사들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며, 그들의 임재와 지배를 스스로 불러들이게 된다. 우리가 자신의 느낌에 굴복하고 생각이 의심과 회의와 원망의 흐름으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불행해질 것이며 우리의 생애는 실패로 드러날 것이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85년 4월 21일.

사고와 감정이 결합되어 도덕적 품성을 이룬다. 우리의 품성은 하위 본성과 상위 본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신은 상위 본성이다. 정신의 사유가 성화되면 우리의 감정도 성화될 것이다. 이는 우리의 인성을 구성하는 두 본성 가운데 정신이 더 높은 지배적 본성이기 때문이다. 우리 존재의 일부로 설계된 "능력들"은 "어느 정도"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시는" 것들과 "유사하다". 우리는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므로, 우리는 그 "능력들"을 "간절히 수고하여 계발해야 한다".

인간의 고등한 본성, 즉 정신의 일부를 이루는 능력으로는 판단력, 기억력, 양심, 그리고 특히 의지가 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어떻게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습니까?" 당신은 자신을 그분께 드리기를 원하지만, 도덕적 힘이 약하고, 의심의 종노릇을 하며, 죄의 삶에서 생긴 습관에 지배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약속과 결심은 모래로 끈 밧줄과 같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생각과 충동과 애정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약속을 어기고 서약을 저버렸다는 사실은 당신 자신의 성실함에 대한 확신을 약화시키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받아주실 수 없다고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이해해야 할 것은 의지의 참된 힘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 안에서 지배하는 힘, 곧 결단과 선택의 능력입니다. 모든 것은 의지의 바른 작용에 달려 있습니다. 선택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며, 그것을 행사하는 것은 그들의 몫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마음을 바꿀 수 없고, 스스로 그 마음의 애정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당신의 의지를 그분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기쁘신 뜻대로 당신 안에서 원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당신의 전 존재는 그리스도의 영의 다스림 아래 들어가게 되고, 당신의 애정은 그분께 집중되며, 당신의 생각은 그분과 조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선함과 거룩함을 사모하는 마음은 그 자체로 옳지만, 거기서 멈추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도 많은 이들이 멸망할 것이다. 그들은 자기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는다. 그들은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선택하지 않는다.

"의지를 올바르게 행사함으로써 당신의 삶에는 전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의지를 그리스도께 굴복함으로써, 당신은 모든 정사와 권세 위에 있는 권능과 연합하게 됩니다. 위로부터 오는 힘이 당신을 굳게 붙들어 줄 것이며, 그리하여 하나님께 끊임없이 자신을 맡김으로 당신은 새 생명, 곧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 47, 48.

의지의 능력은 인간의 본성 안에서 "통치하는 권능"이며, 그 통치자는 '모든 정사와 권세 위에 있는 권능'과 연합된 인간 성전의 처소에 자리한다. 인간 성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하는 그 장소가 곧 영혼의 성채이다. 모든 인간은 성채를 가지고 있으며, 그 성채는 그리스도께서 점거하시거나, 그리스도의 궁극의 대적이 점거한다.

그리스도께서 영혼의 요새를 점령하실 때, 인간 방편은 그분과 하나가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그 연합을 유지하며, 그분을 마음의 왕좌에 모시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는 악한 자의 울무에서 안전하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영혼들을 그분께 얻는 일에 자신의 힘과 역량과 능력을 주께 봉헌한다. 구주와 협력함으로 그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도구가 된다. 그때 사탄이 와서 영혼을 점령하려고 애쓸 때, 사탄은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무장한 강한 자보다 더 강하게 하셨음을 알게 된다. Review and Herald, 1899년 12월 12일.

영혼의 보루는 인간의 마음과 정신이다. 새 언약의 약속은 신자에게 세 가지 주된 약속을 명시한다. 신자에게는 거주할 땅이 약속되었는데, 이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동산이 그러하였던 것과 같으며, 그 에덴은 다시금 그분께서 옛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에서의 약속의 땅을 표상하였고, 그 약속의 땅은 다시 영적 이스라엘을 위한 영광스러운 영적 땅을 표상하였으며, 이 셋 모두가 그분께서 이기신 것 같이 이기는 자들을 위하여 새롭게 된 땅의 약속을 줄에 줄을 더하듯 증언한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은 "일곱 때" 동안 에덴동산 밖으로 "흠어졌다". 그리고 칠천 년이 지난 뒤 땅이 새롭게 되고 에덴동산이 회복된다. 고대 이스라엘이 "일곱 때" 동안 흠어진 것은 아담과 하와의 흠어짐으로 예표되었다. 언약은 거주할 땅을

약속하며, 그것은 회복된 에덴에 대한 약속이었다. 성소와 군대를 짓밟는 것은 아담의 죄에서 시작된 인류 안에서 죄가 점진적으로 심화되는 것을 나타낸다.

언약의 다른 두 가지 약속은 신실한 자들이 새 몸과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몸은 육신, 곧 하위 본성이며,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그것은 교회를 가리킨다. 마음은 상위 본성으로, 화이트 여사가 "영혼의 성체"라 지칭한 바로 그것이다. 바울은 우리가 복음의 요구를 받아들여 의롭다 하심을 받는 바로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는다고 분명히 가르친다. 또한 그는 재림 때까지는 새롭고 영화로운 몸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친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들지는 아니하겠으나, 다 변화될 것이니라.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마지막 나팔에. 나팔이 울릴 것이요,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될 것이니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어야 하리라. 그러므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니,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무덤아,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고린도전서 15:51-56.

요한에 따르면 그러한 그릇된 가르침을 믿는 이들을 적그리스도로 규정하는 한 교리는,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죄 이후로 인류에게 미치기 시작한 죄의 영향 아래에 있는 몸을 결코 취하지 않으셨다고 주장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음을 시인하지 않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며, 이것이 곧 너희가 오리라고 들은 그 적그리스도의 영이요, 지금도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요한일서 4:3

'원죄 없는 잉태'를 가르치는 바벨론(적그리스도)의 포도주는, 예수의 탄생이 신성(성령)에 의한 잉태와 완전한 인성(마리아)에 기초하도록 하기 위해, 마리아가 죄 이전의 아담과 하와처럼 완전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원죄 없는 잉태'라는 거짓 교리는 예수가 마리아의 태중에서 언제 잉태되었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아담과 하와의 완전함을 지닌 상태로 어떻게 잉태되었는지를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구속하시려고 오실 때 취하신 육체가 유전의 영향이 전혀 없는 죄 없는 육체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이다.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나왔으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다.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 요한이서 1:7.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영감은 그분이 그때 영화된 몸을 가지셨다고 세심하게 지적한다. 그분의 부활은 재림 때 의인들의 부활을 대표했으며, 바로 그때 우리가 새 몸에 대한 언약의 약속을 받는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보좌로 올라가실 때가 이르렀다. 신성한 정복자로서 그분은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하늘 궁정으로 돌아가시려 하셨다. 죽으시기 전에 그분은 아버지께 이렇게 선언하셨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나이다." 요한복음 17:4. 부활하신 후에는 한동안 이 땅에 머무르시며 제자들이

부활하시고 영광을 입으신 그분과 친숙해지도록 하셨다. 이제 그분은 작별할 준비가 되었다. 그분은 자신이 살아 계신 구주이심을 확증하셨다. 제자들은 더 이상 그분을 무덤과 연관 지을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그분을 온 하늘 우주 앞에서 영광을 받으신 분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 시대의 소망, 829.

거할 땅에 대한 언약의 약속은 새롭게 된 땅에서, 에덴이 회복되고 '일곱 때'(칠천 년)에 걸친 첫 아담의 인류의 흠어짐이 종결될 때 성취된다. 새롭고 영화로운 몸에 대한 언약의 약속은 재림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주어진다.

베들레헴의 이야기는 무궁무진한 주제이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의 깊이'가 숨겨져 있다. 로마서 11:33. 우리는 하늘의 보좌를 구유와 바꾸시고, 경배하는 천사들의 교제를 마구간의 짐승들과 바꾸신 구주의 희생에 경탄한다. 그분의 임재 앞에서 인간의 교만과 자기만족은 책망을 받는다. 그러나 이것은 그분의 놀라운 낮아지심의 시작에 불과했다. 에덴에서 아담이 무죄함 가운데 서 있던 때의 인간 본성을 취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거의 무한한 낮아지심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인류가 사천 년의 죄로 약해졌을 때 인성을 받아들이셨다. 아담의 모든 자손과 같이 그분은 유전의 대법칙이 작용한 결과들을 받아들이셨다. 이러한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는 그분의 육신의 조상들의 역사에서 드러난다. 그분은 이런 유전을 지니고 오셔서 우리의 슬픔과 시험을 함께 나누시고, 죄 없는 생애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다. 시대의 소망, 48.

한 사람이 복음의 요건을 충족할 때 그는 즉시 새로운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지만, 몸, 즉 바울이 '육체'라고도 부른 것은 재림 때 변화된다. 감정으로 이루어진 하위 본성은 회심 때 제거되지 않는다. 도덕적 성품의 한 부분을 이루는 그 감정들은 재림 때까지 남아 있다. 그 감정들은 호르몬계와 연관된 정서 체계를 가리킨다. 또 그것들은 신경계와 연관된 감각을 나타낸다. 인간의 하위 본성 가운데 감정으로 간주되는 모든 요소는 두 가지 기본 범주로 나뉜다. 하나는 우리가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성향들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의 선택으로 길러온 성향들이다.

일부 유전적 성향은 단순히 인간이라는 존재의 설계의 일부이며, 어떤 유형의 유전적 성향은 악을 행하려는 것이다. 함양된 감정의 유형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선택으로 확립하는 것이고, 유전적 성향은 "유전의 위대한 법칙"에 의해 전해진다.

예수께서는 "인류가 죄로 사천 년 동안 약화되었을 때 인성을 취하셨다. 아담의 모든 자녀와 같이 그분은 유전의 대법칙의 작용의 결과를 받아들이셨다. 이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는 그분의 육신의 조상들의 역사에서 드러난다. 그분은 이러한 유전을 지니고 오셔서 우리의 슬픔과 시험을 함께하시고, 죄 없는 생애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이시려 하셨다." 사천 년 동안 유전의 대법칙이 작용하여 빚어진 그 결과들을 지니신 채, 예수께서는 언제나 그분의 의지를 행사하여 그러한 결과로 드러난 성향들을 복종시키셨고, 단 한 번도 어떠한 죄된 감정도 조장하신 일이 없었다.

예수께서 죄를 짓기 전의 아담과 하와로 대표되는 인간의 몸을, 사천 년에 걸친 타락으로 인해 인류가 약해진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취하셨더라면,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모범을 제공하지 못하셨을 것이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이 갈등이 자신의 삶과 별다른 관련이 없다고 여기며, 그래서 그것은 그들에게 거의 흥미가 없다. 그러나 각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이 논쟁이 되풀이된다. 하나님의 섬김을 위해 악의 편을 떠나는 사람치고 사탄의 공격을 만나지 않는 이는 없다. 그리스도께서 물리치신 유혹들은 우리가 그토록 저항하기 어려워하는 바로 그 유혹들이었다. 그분의 품성이 우리의 것보다 뛰어나신 만큼, 그 유혹들은 그분에게 훨씬 더 강하게 밀어닥쳤다. 세상의 죄라는 엄청난 무게를 짊어지신 채, 그리스도께서는 식욕에 대한 시험,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한 시험, 그리고 주제넘음으로 이끄는 과시를 사랑하는 마음에 대한 시험을 견뎌내셨다. 이것들은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유혹들이며, 또한 우리를 너무나 쉽게 무너뜨리는 유혹들이다.

사탄은 아담의 죄를 하나님의 율법이 불의하며 지킬 수 없다는 증거로 내세웠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인성을 취하시고 아담의 실패를 속량하셔야 했다. 그러나 아담이 유혹자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는 죄의 어떤 결과도 그에게 미치지 않았다. 그는 완전한 인간성의 힘으로 서 있었고, 마음과 몸의 총명한 활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에덴의 영광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하늘의 존재들과 날마다 교통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사탄과 맞서기 위해 광야에 들어가셨을 때는 그렇지 않았다. 사천 년 동안 인류는 체력과 지력과 도덕적 가치에 있어서 쇠퇴해 왔고, 그리스도께서는 타락한 인성의 연약함을 친히 취하셨다. 오직 이와 같이 하심으로만 그분은 인간을 그의 타락의 가장 깊은 나락에서 구원하실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유혹에 굴복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그분은 아담의 처지에 놓일 수 없었을 것이며, 아담이 얻지 못한 승리를 얻을 수도 없었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든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것보다 더 힘겨운 싸움을 치르고 있다면, 그분은 우리를 도우실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께서는 모든 연약성과 한계를 지닌 인성을 취하셨다. 그분은 유혹에 굴복할 가능성을 지닌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 가운데 그분께서 견디지 않으신 것은 없다.

"에덴의 거룩한 한 쌍의 경우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있어서도 최초의 큰 시험은 식욕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타락이 시작된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구속 사역이 시작되어야 한다. 아담이 식욕을 방종함으로 타락하였듯이, 그리스도께서는 식욕을 절제하심으로 반드시 이기셔야 한다. '사십 주야를 금식하신 후에 주리시니라. 시험하는 자가 그분께 나아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그분은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담으로부터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기 방종은 식욕과 정욕의 힘을 키워 그것들이 거의 무제한적으로 지배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타락하고 병들었으며, 스스로는 그것을 이길 수 없었다. 인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혹독한 시험을 견디심으로써 승리하셨다. 우리를 위해 그분은 굶주림이나 죽음보다 더 강한 절제력을 발휘하셨다. 그리고 이 첫 승리에는 우리가 어둠의 권세와 벌이는 모든 싸움에 수반되는 다른 문제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 시대의 소망, 117.